

17대 총여학생회 평가

11월 11일 토

1. 시사학습

집단학습이 선거 시기 이후 거의 전무했다.

정세토론은 진행되었으나 여성학, 여학운동에 대한 것, 그리고 일꾼으로서 자세와 인생관 등에 대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총여일꾼들 안에서는 담화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는 많이 했으나 체계적인 학습되지 않았다. 1학여대협 건설의 의의에 맞는 학습을 벌여내지 못하였다.

원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학습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가져가지 못했다.

과제: 실정에 맞는 학습 계획, 꾸준한 학습을 정례화 시키는 것.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있는 자료부터 활용 잘하기.

여성민중의 현실을 알기 위한 노력 필요.

조직생활을 잘하고 그 안에서 일꾼 교양.

2. 조직생활

집행부가 3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봉에서 투쟁.

대중사업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많이 느슨했다.

회장과 집행부들이 느끼는 조직생활의 중요성이 차이가 있었다.

골간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학여대협과 운영위 등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원인: 조직운영의 미흡.

조직생활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사상학습 부족의 후과.

과제: 조직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으로 집행부의 자발적 참여.

지속적인 조직생활 가져가야

골간체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과 단위 선거 들어갈 때부터 과 선봉에 대한 교양사업(과 자체에서 여학생부 고민할 수 있게)

-1학여대협과 운영위를 책임지는 자세 필요.

-조직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 마련.

과 단위와의 간담회(주체를 세우기 위한 과정, 총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과정, 기층 여학우들과 총여의 사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과정)

3.대중사업

가장 큰 성과는 대중사업을 할 때 학우들의 정서에 맞게 학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펼쳤다. (통크게, 다양하게)

무작위 대중과 함께하는 사업을 잘 되었으나 단위에 사람이 남게하는 구체적인 의조직화사업 미흡.

수요집회나 금요집회 등 합법적 공간안에서 쉽게 학우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지 못했다.

학우들을 직접 만나가는 작업의 부족으로 집안잔치로만 끝나는 경우 많았다.

올해의 모범: 해오름제와 여성문화제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사전준비부터 내실있게 진행, 본판의 창발적 내용(미군범죄 스티커 설문, 한반도 전구 모형, 4행시 짓기, 가로세로 낱말 퀴즈, 처음으로 여학생회에서 준비한 주점, 성에 대한 강연 등)

-실제 학우들의 참여가 많았다.

-더욱 더 드높아진 반미와 조국통일을 쉽게 학우들과 공유하고 공분을 모아 갈 수 있었다.

일상사업에서 학우들을 꾸준히 만나가는 것 부족했지만, 화장실 유인물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 제 때 대자보를 통해 알려 나갔다.

복지 문제: 아씨방을 생활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아씨방에 국한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고민 풀어야.

더욱 더 연대사업이 중요시 되는 정세 속에서 더욱 더 중요해진 사업인 농활과 기활을 수행하지 못했다.

반미: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 갈 것에 대한 고민

반일: 정대협과의 더욱 더 높은 연대활동 필요

자주교류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가져가야

전여대협과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갔다.

특히 몇 년동안 자체의 투쟁을 가져가지 못했던 서여대협에 대한 고민을 높혀 가는데 선봉에 섰다.

성과- 서여대협이 나의 조직이라는 인식, 서여대협 자체의 투쟁

과제: 대중관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한 교양 필요.

대중속에서 사업을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연대사업의 주체 세우는 문제부터 연대사업에 대한 고민 꾸준히 가져가기.

모든 사업이 사람을 남기는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기

2000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7대 총여식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언제 어디서든 자주적 여성으로서 다부지게 살아갑시다. 2001년도 투쟁!!!

새천년 주체여성의 다부진 실천

민족경기 17대 총여학생회